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안내
 - 12월16일 성례주일
세례: 송윤철, 이미경, Evelyn Song, Anderson Choi
입교: Eunice Ahn, Chris Ahn, Elisha Choi, Eliana Choi, Dael Ki, Daniel Seong, Janice Seong
 - 12월23일 성탄주일
 - 12월31일(월) 11 pm 송구영신 예배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감사찬양제
 - 일시/장소: 오늘 오후 5시, 뉴욕남교회 (51-5 Queens Blvd., Woodside, NY 11377)
- 교육부 공고
 - 학년말 학부모회의: 12월9일(주) 친교 후
 - 1층 로비에서 Food Donation Drive 진행중입니다.
- 공동의회 공고:
 - 일시/장소: 12월9일(주) 예배 후 본당
 - 안건: 장로 후보 선출
- 2019 단기선교:
 - 기간: 2월18일(월)-22일(금)
 - 장소: 혼두라스
 - 안건: 장로 후보 선출
- 이번 주 금요기도회(7일)는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황혜영 집사 (말 3:1-4)
 이번 주 친교: 김현정 권사, 오영숙 집사
 다음 주 친교: 김은영 집사, 이영미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 ----- Edwin Kim 전도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Romans 5:1-8** ----- Edwin Kim 전도사
 설교(Sermon) ----- “**A Season of Hope**”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28장 (통28장) “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 (Psalm) 25:1-10 ----- 황용규 집사
 찬양(Choir) -----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신명기 (Dt.) 28:8-14**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설교(Sermon) ----- “**복의 근원**”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25장 (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위로부터

(야고보서 1:1-8; 16-18; 3:13; 5:7-8)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불리는 편지에는 잠언과도 유사한 주제의 현실적인 명령들이 나와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들에 비해 야고보서를 깊이가 떨어지는 편지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 행하고 소망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마치는 믿음의 삶을 가르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지혜와 선행은 은혜가 아니면 행할 수도 이롭지도 않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지만 그 혈연관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부르고,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호적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혈연의 부모와 형제보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을 부모 형제라 불렀습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오는 신실하고 완전한 은혜를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도우심을 알기에 시험에 속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고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주님께 간구해 얻는 지혜는 우리 주님처럼 평강하고 정결하고 관용합니다. 나의 신앙양심이 형제를 미워하고 경멸하게 한다면 과연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를 향해 열린 눈과 귀와 심령이 있는지, 나의 기도가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면 우리 선행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도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농부가 열매 맺기를 믿고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수고와 선행은 주님께 드려 쓰임받는 것이기에,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며, 그 열매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루겠다고, 인정받아야겠다고 고집할 때 이루고 인정받은 사람은 교만해 자기와 남을 해치고, 이루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더욱 낙심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법입니다. 내 눈 앞에서 거두지 못해도 추수의 주인께서 사용하시고 거두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지지 않게 합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권속된 형제들이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믿고 속지 맙시다.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합시다. 높거나 낮거나 감사하고, 가난하거나 부하다고 차별치 말고 사랑합시다. 듣지만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닮아갑시다.